

WEEKLY REPORT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31**

JUNE 11 2020

발간년월 2020년 6월 11일 (통권 제13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지난해 러시아 항만 광물비료 처리량, 주변국보다 3배 이상
- 러, 22220 프로젝트- 원자력 쇄빙선 “아쿠티야” 건조 착수
- 러시아 최북단 프란츠요셉 군도에 비행장 건설 자재 운송
- 러시아 무르만스크 연결 철교 붕괴사고로 철도 물류 차질
- 무르만스크 주 정부, 화물 처리능력 1억 톤으로 확충 예정
- 러 노바텍, 5월 달에 NSR 동쪽 방향으로 LNG 운송 성공

## 주요 통계

-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주요 동향



### 지난해 러시아 항만 광물비료 처리량, 주변국보다 3배 이상

#### ■ 2019년 러시아 항만을 통한 광물비료 물동량 증가율이 인접국 항만보다 3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에너지 전문 매체인 ‘아르구스’(Argus)는 최근 《벌크 화물과 물류》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철도를 통해 북서지역에 위치한 항만으로 운송되는 광물비료 규모 전망에 대해 논의함
- 지난해 러시아에서 생산된 광물비료는 5200만 톤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수치임

#### ■ 국내(러시아) 시장에서 광물 비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음

- 러시아 광물비료 생산업체들은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등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항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요 활용 항만 및 터미널은 흑해와 발트해에 위치해 있으며, 총 수출량의 90%가 발트해(리가(라트비아), 무가(에스토니아), 코트카(핀란드)) 항만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 우스트루가, 무르만스크 항만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 총 생산량의 64%는 러시아 북서지역에 위치한 항만을 통해 수출되며, 19%는 에스토니아, 10%는 핀란드, 7%는 라트비아를 거쳐 수출되는 실정임

#### ■ 세르게이 프로닌(Sergei Pronin) 포스아그로(ForsAgro) 마케팅 부장은 본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항만은 러시아 북서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생산지와 근접해 있어 물류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포스아그로 사(社)의 총 수출량 650만 톤 중 200만 톤은 무르만스크, 400만 톤은 우스트루가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 항만, 나머지는 코트카 항만을 통해 수출된다고 추가 설명함
- 또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의 광물비료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만 톤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 항만의 물동량은 60만 톤이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내(러시아) 터미널을 통해 광물비료를 수출하기 위한 물류루트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우스트 루가 항만에 위치한 ‘울트라마르’(Ultramar)단지의 연간 처리량은 약 20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

#### 참고자료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porty\\_rastut\\_na\\_udobreniyah](http://vch.ru/event/view.html?alias=porty_rastut_na_udobreniyah)(2020년 6월 11일 검색)

## 러, 22220 프로젝트-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 건조 착수

### ■ 5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트 조선소(Baltic Shipyard)에서 “22220 프로젝트”의 세 번째 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Yakutia)”의 기공식이 열림<sup>a)</sup>

- 이 행사는 발트 조선소의 창립기념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건설 전야를 기념하는 사업과 함께 열렸음
- 러시아는 전통에 따라 선체 하단 부분에 현판이 설치됨. 바체슬라브 룩샤 로사톰 부사장 및 북극항로 관리국장(Vyacheslav Ruksha, deputy director general of the Northern Sea Route Directorate for the Rosatom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 안드레이 페도토브 사하공화국 대표 연방 상원의원(Andrei Fedotov,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Sakha to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에두아드 바타노브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지사(Eduard Batanov, vice governor St. Petersburg and director), 그리고 이고리 샤칼로 발트 조선소 이사회 의장(Igor Shakalo,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Baltic Shipyard)이 현판을 고정하는 영예를 얻음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으로 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의 기공식은 간략히 진행됨

### ■ 쇄빙선 “야쿠티야”는 “아르티카(Arktika)”, “시비르(Sibir)”, “우랄(Ural)”에 이은 네 번째 쇄빙선이며, “22220 프로젝트”의 3번째 선박임

- “22220 프로젝트” 쇄빙선의 전체 길이는 173m, 폭은 34m, 배수량은 33,500톤이며, 최대 2.8m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음. 이 선박은 175MW의 용량을 가진 2개의 원자로 엔진을 탑재한 것이 특징임
- 또한, 선박은 북극항로의 심해와 수심이 낮은 예니세이 강(Yenisei river), 그리고 오비만(Gulf of Ob)까지 얼음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모두 항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됨

그림. 원자력 쇄빙선 야쿠티야 기공식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a\\_baltiyskom\\_zavode\\_zalozhili\\_novyy\\_ledokol.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a_baltiyskom_zavode_zalozhili_novyy_ledokol.html), <https://www.rosatom.ru/en/press-centre/news/the-keel-of-the-new-nuclear-icebreaker-was-laid-at-the-baltic-shipyard>

## ■ 관련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 건조에 대한 우위를 평가

- 바체슬라브 룩샤 로스아톰 부사장은 쇄빙선의 기공을 기념하며, 발트 조선소의 근로자들과 선박 건조에 관련된 모든 기업 인사들에게 축사를 전함. 이어 원자력 쇄빙선 건조는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러시아의 북극 개척의 우위를 확증한다고 언급함
- 안드레이 페도토브는 사하공화국 대표 연방 상원의원은 아이스 니콜라예프(Aisen Nikolaev) 사하공화국 대통령을 대신해 발트 공장 창립 164주년과 야쿠츠크와 강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도시 건설을 기념하는 축사를 전함
- 이와 함께 쇄빙선 “야쿠티야”가 발트 조선소의 창립일에 기공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야쿠티아 공화국과 쇄빙선 “야쿠티야”는 북극항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아이스 니콜라예프 사하공화국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조선 및 선박 수리 기업의 양질의 인력 교육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에두아드 바타노브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국가와 도시를 위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를 축하하며, 새로운 쇄빙선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야쿠티야”는 러시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인 것에 주목함
- 또한, 그는 “야쿠티야”라는 이름은 북극항로의 개발, 현대적인 쇄빙선 건조, 그리고 북극의 번영 등 현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언급함. 이어 발트 조선소의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전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무스타파 카시카 아톰플롯 사장(Mustaka Kashka, General Director of FSUE Atomflot)은 세 번째 원자력 쇄빙선의 기공은 북극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게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함. 또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쇄빙선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는 것은 미래 원자력 쇄빙선 함대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라고 함

## ■ 쇄빙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쇄빙선 선대를 갖게 됨

- 2019년 8월 발트 조선소와 로사톰은 “22220 프로젝트”의 새 원자력 쇄빙선 2척의 계약에 서명함. 당시 계약금액은 1000억 루블에 달함
- 최근 몇 년 간 발트 조선소는 현대적인 원자력 쇄빙선 건조의 경험을 축적함. 쇄빙선 프로젝트에는 발트 조선소의 모든 기술 솔루션과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전부 반영될 것임
- 이 계약에 따라 발트 조선소는 최초의 원자력 쇄빙선 “아르티카”, “22220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 “시비르”, 두 번째 “우랄”, 세 번째 “야쿠티야”, 그리고 네 번째 원자력 쇄빙선까지 총 5척의 선박을 건조할 예정임
- 쇄빙선 건조 프로젝트는 현대적이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러시아의 주력사업임.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쇄빙선 선대를 가지게 됨
- 원자력 쇄빙선 건조는 북극항로의 수송 잠재력을 여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a\\_baltiyskom\\_zavode\\_zalozhili\\_novyy\\_ledokol.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a_baltiyskom_zavode_zalozhili_novyy_ledokol.html)  
(검색일: 2020년 5월 28일)
- b) <https://www.rosatom.ru/en/press-centre/news/the-keel-of-the-new-nuclear-icebreaker-was-laid-at-the-baltic-shipyard>(검색일: 2020년 6월 9일)



## 러시아 최북단 프란츠요셉군도에 비행장 건설자재 운송

### ■ 프란츠요셉 군도, 알렉산드라에 나구르스카야 비행장 활주로 건설을 위한 건축 자재 운송<sup>a)b)</sup>

- 러시아 북극 함대는 프란츠요셉 군도의 알렉산드라(Alexandra Land)에 나구르스카야(Nagurskaya) 비행장 건설을 위한 화물 1만 5000톤이 운송되었다고 밝혔다
- 화물 운송에는 러시아의 핵추진 쇄빙 화물선 세브모르푸트(Sevmorput)호가 이용되었음. 세브모르푸트 호는 크림반도의 케르치에 위치한 자리브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8년 12월 국영 무르만스크 해운회사(MSCO)에 인도되었음
- 세브모르푸트 호는 길이 260.30m, 폭 32.20m에 총 톤수 3만 8226GT, 최대 속도는 20.8노트이며, 최대 1328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핵추진 쇄빙 화물선임

그림. 프란츠요셉군도(Franz Josef Land)군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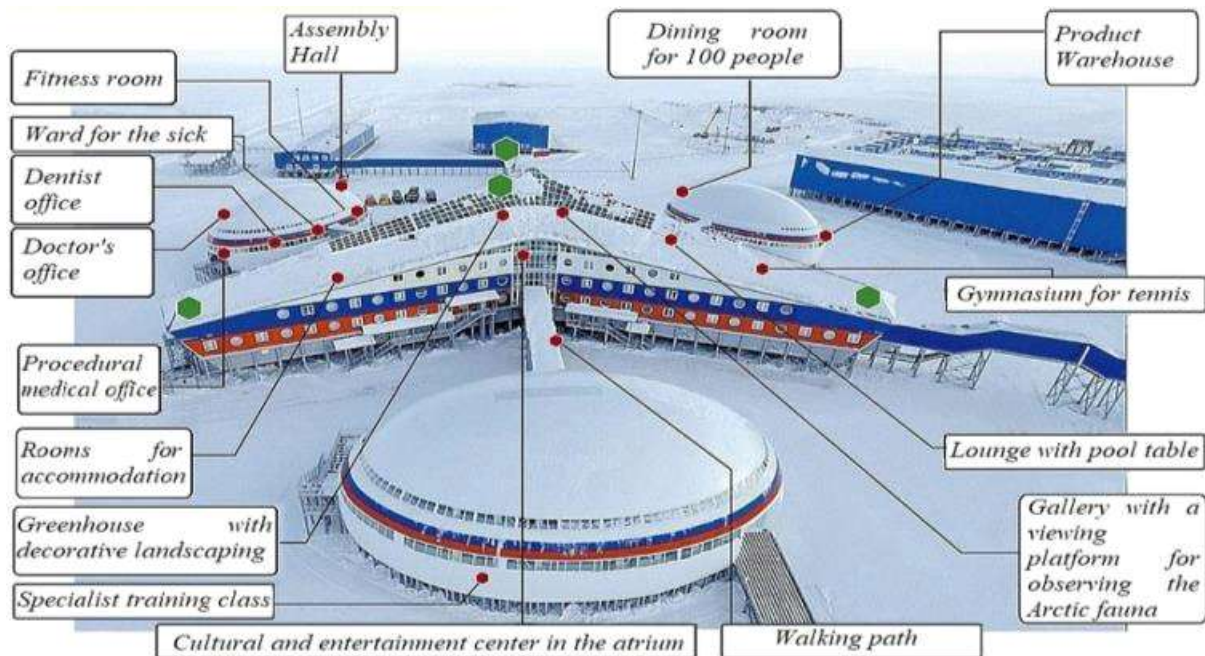


자료: <https://www.nationalgeographic.org/projects/pristine-seas/expeditions/franz-josef-land/>

## ■ 프란츠 요셉 군도에 들어서는 나구르스카야 비행장은 북극점에 가장 근접한 비행장<sup>c)</sup>

-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주에 속해 있는 프란츠요셉 군도는 약 8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약 1만 6090km<sup>2</sup>, 북위 80.0° ~81.9° 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는 제도들 중에서 가장 북쪽임
- 러시아는 프란츠요셉 군도의 알렉산드라에 2015년 군사기지를 건설했으며, 북극 클로버 (Arctic Shamrock)로 명명했음. 프란츠 요셉 군도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 47℃까지 떨어지는 지역이라 내부 통로를 통해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며, 외부 지원 없이도 150명의 군인이 최장 18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나구르스카야 비행장은 2020년 일부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으나 추가 활주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류신(Iluyshin)Il-76 등의 항공기가 운항 중임

그림. 프란츠요셉 군도(Franz Josef Land)의 북극클로버(Arctic Shamrock) 기지



자료: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General-overview-of-the-Arctic-Shamrock-base-Photo-By-Dmitry-Polukhin-3\\_fig1\\_333468083](https://www.researchgate.net/figure/General-overview-of-the-Arctic-Shamrock-base-Photo-By-Dmitry-Polukhin-3_fig1_333468083)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 <https://tass.com/economy/1163759>(2020년 6월 9일 검색)
- <https://en.portnews.ru/news/296756/>(2020년 6월 9일 검색)
-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9629819>(2020년 6월 9일 검색)



# 러시아 무르만스크 연결철교 붕괴사고로 철도물류 차질

## ■ 콜카 강 철교가 붕괴하면서 무르만스크행 철도 운송에 차질이 생겼음<sup>a)b)</sup>

- 브이하드노이(Vykhodnoy) 철도역 인근 콜카 강 철교는 1930년에 건설되어 2014년에 보강이 된 오래된 인프라 시설로 5월 말경 이미 교각에 파열이 발견되어 철도운송이 중단되고 복구 작업을 실시했으나, 최근 얼음 해빙으로 빠르게 늘어난 강수량과 강한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음
- 이에 따라 러시아 철도청은 무르만스크로 향하는 모든 철도 운송을 임시 중단시켰음
- 이번 붕괴된 철교는 무르만스크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무르만스크로 운송되는 재화의 대부분이 철도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의존함에 따라 이번 붕괴사건으로 인해 주요 물류체인 등에 많은 차질이 생김
- 무르만스크 무역항은 이미 10척 이상의 선박을 돌려보내야 했으며, 현재 대체 운송로를 모색하고 있음
- 6월 23일까지 붕괴한 철교를 우회하는 임시 구조물이 구축되어 무르만스크와의 철도연결이 재개될 예정이며, 새로운 철교는 10월 초까지 완공될 계획임

## ■ 무르만스크는 북극권의 주요 교통허브이며, 무르만스크는 철도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2030년까지 1억 톤으로 늘릴 계획임<sup>a)</sup>

- 무르만스크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1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북극권의 주요 교통허브로 자리잡고 있음
- 무르만스크 교통허브는 NSR로 가는 관문이며 무르만스크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무르만스크 개발 사업의 기존 계획에 따르면 철도의 물동량 처리 능력 목표를 연간 2800만 톤으로 발표된바 있으나, 지난 5월 안드레이 치비스(Andrei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무르만스크 교통허브의 철도 물동량 처리 능력을 1억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림. 콜라 강 철교 붕괴



자료: gov-murman.ru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20/06/tremendous-transport-trouble-murmansk-key-railway-bridge-collapses>(2020년 6월 8일 검색)
- b) <https://uk.reuters.com/article/russia-bridge/russian-railways-to-resume-murmansk-rail-traffic-by-june-23-idUKL8N2DG4BD>(2020년 6월 8일 검색)
- c)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murmansk-governor-hub-cargo-handling-capacity-should-be-increased-to-100-million-tonnes/>(2020년 6월 8일 검색)

## 무르만스크 주 정부, 화물처리능력 1억 톤으로 확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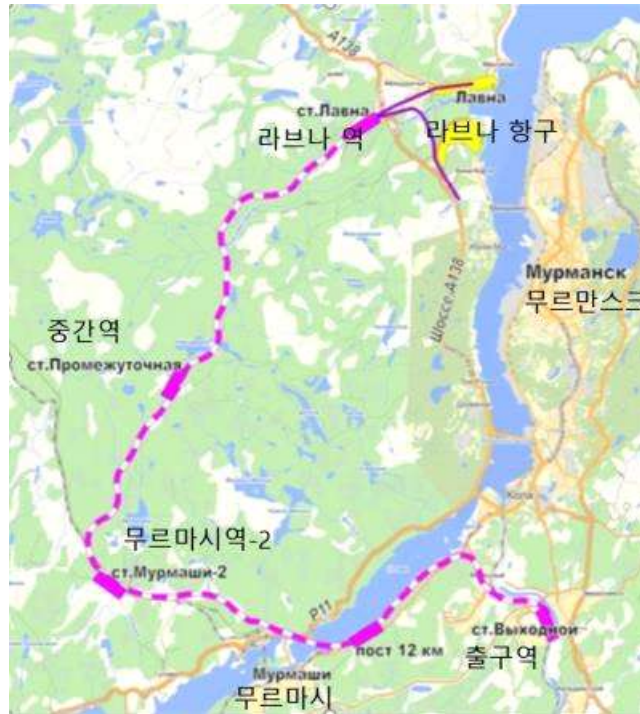
### ■ 러시아 북부 연안 지역 교통물류 중심지인 무르만스크는 화물처리능력 확대 계획에 착수함<sup>a)</sup>

- 안드레이 치비스(Andrey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6월 3일 무르만스크 교통 허브의 철도 부분의 화물을 1억 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고 밝히며 “무르만스크 지역이 2030년까지 도달하게 될 추가적인 역량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언급함
- 이 개발사업에는 석유와 석탄을 처리하는 북극해안의 심해 항구도 포함이 됨. 무르만스크 항구는 남북 국제 항구를 통합하는 회랑으로 사용될 것임. 무르만스크주 정부는 중앙 정부에게 화물처리 능력을 440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데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주지사는 무르만스크 허브는 북극 항로의 관문이며, 화물처리능력과 효율적인 항만 인프라에 대한 기존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 러시아 국영철도공사는 무르만스크 화물 운송을 위한 보조금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sup>b)c)</sup>

- 6월 3일 러시아 국영 철도공사 회장 올렉 벨로제로프(Oleg Belozyrov)와 무르만스크 주지사 안드레이 치비스가 만나서 화물 운송 보조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벨로제로프는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러시아 철도의 경제와 지역경제를 개선할 고수익, 고부가가치 화물이 이곳 무르만스크로 운송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음
- 화물은 무르만스크에서 러시아 전역으로 운송되고, 러시아 전역의 화물이 무르만스크로 집화될 것임. 이를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지역을 포함해 화물 운송 역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벨로제로프는 언급했음
- 러시아 연방의 주 프로그램에 포함된 ‘라브나(Lavna)’ 항구 프로젝트는 무르만스크는 교통 물류 허브에 대한 지원으로 종합 개발 계획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음

그림 1 무르만스크 교통물류 프로젝트 ‘라브나 항만’



자료: yandex.map.ru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8637361>(2020년 6월 6일 검색)
- b) <https://tass.ru/ekonomika/8636101>(2020년 6월 6일 검색)
- c) <https://morproekt.ru/projects/426-kompleks-peregruzki-uglya-lavna-v-morskoy-portu-murmansk>(2020년 6월 6일 검색)

## 러 노바텍, 5월달에 NSR 동쪽 방향으로 LNG 운송 성공

### ■ 노바텍이 일반적으로 아시아로 운항이 가능한 7~11월보다 빠른 5월에 시범 운항을 시도한 결과 최단기간에 NSR를 통과했음<sup>a)</sup>

- 러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천연가스 기업인 노바텍은 보통 아시아로 운항이 가능한 시기인 7~11월보다 빠른 5월에 NSR 동쪽 운항의 가능성을 시험했으며, 이번 시범운항에 투입된 쇠빙LNG선 크리토포 드 마저리 호는 핵추진 쇠빙선의 도움으로 12일 만에 NSR의 결빙구간(약2,500nm)를 통과함
- 크리토포 드 마저리 호는 5월 18일 사베타 항에서 출항하여 카라해에서 야말호(핵추진 쇠빙선)의 호위를 받고 5월 31일 베링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에 진입했음
- 이 선박은 중국 북부지역에 위치한 탕산 항만에 6월 11일 출항한지 25일 만에 도착할 예정인데, 36일이 걸리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 비해 11일 단축될 것으로 보임

### ■ 러시아는 NSR를 연중운항이 가능한 항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LNG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러시아는 NSR이 연중 운항이 가능한 항로로 만들기 위해 핵추진 쇠빙선 보유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연중 운항이 가능할 경우 아시아 LNG 수출시장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임
- 노바텍은 지난해 아시아 시장으로 LNG 생산량의 6.5%인 1200만 톤을 수출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LNG를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시범운항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NSR 운항기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미 크리토포 드 마저리 호가 출항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서 블라드미르 보로닌 호가 사베타항에서 중국으로 출항했으며, 크리토포 드 마저리 호보다 연안선에 근접하여 NSR를 운항하고 있는 블라드미르 보로닌 호는 NSR를 10일 내로 더 빨리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카라해-랍테브해 구간 운항 기록 비교



주: 크리스토프 드 마저리호 운항로(노랑), 블라드미르 보로닌 운항로(분홍)

자료: IHS Markit Maritime & Trade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 참고자료

- a) <https://www.highnorthnews.com/en/arctic-ice-melts-russia-conducts-record-breaking-delivery-lng-china>(2020년 6월 8일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1.75 (+1.9%)	6.9 (+2.6%)	18.65	+2.2%
북극해	2.41 (-9.8%)	6.04(-2.6%)	8.45	-4.7%
발트해	9.34(-1.1%)	12.78 (+7.0%)	22.12	+3.6%
아조프-흑해	9.48 (+4.0%)	15.25 (+3.1%)	24.73	+3.4%
카스피해	0.34 (+38.3%)	0.41 (+26.8%)	0.75	+31.6%
합계	11.75 (+1.9%)	6.9 (+2.6%)	18.65	+2.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053,514.1	507,680.7	2,052,912.6	506,529.5	601.6	1,151.2
광물 제품	416,376.0	72,046.0	416,182.7	72,010.7	193.3	35.3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09,134.8	17,476.6	1,309,134.8	17,476.6	0.0	-
생고무 및 화학 제품	1,247,769.2	16,360.7	1,247,769.2	16,360.7	0.0	0.0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55.8	55,374.8	4,338.0	55,374.3	17.8	0.4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20.6	853.5	20.6	853.5	0.0	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78,582.8	7,077.3	78,467.0	7,032.7	115.7	44.6
금속 및 금속 제품	1,366.5	18,130.0	1,366.5	18,130.0	0.0	0.0
기계류	15,563.0	43,335.9	15,562.8	43,065.3	0.1	270.6
기타	16,190.3	267,986.3	15,919.2	267,214.9	271.1	771.3
합계	211,924.4	25,400.4	211,920.9	25,371.4	3.5	29.0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3675>(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1	7.1	-	-	1	7.1	-	-	-	-	-	-
연어류	178,025	257,187	466	716	177,983	257,061	466	716	42	126	-	-
넙치	9,971	20,198	-	-	9,929	20,072	-	-	42	126	-	-
가자미	41	177	-	-	41	177	-	-	-	-	-	-
가자미류	2,358	2,340	-	-	2,358	2,340	-	-	-	-	-	-
청어	4,309	4,663	-	-	4,309	4,663	-	-	-	-	-	-
대구	1,771	1,345	-	-	1,771	1,345	-	-	-	-	-	-
명태	8,683	23,897	-	-	8,683	23,897	-	-	-	-	-	-
농어	136,661	170,288	-	-	136,661	170,288	-	-	-	-	-	-
간, 곤이 (어란)	16	115	-	-	16	115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662	23,383	-	-	6,662	23,3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446	700	-	-	446	700	-	-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545	31,095	48	197	10,545	31,095	48	197	-	-	-	-
갑각류	4	83.5	148	924	4	83.5	148	924	-	-	-	-

계류	3,087	53,562	42	246.6	3,087	53,562	42	246.6	-	-	-	-
조개류	2,034	45,661	-	-	2,034	45,661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21	1,808	-	-	821	1,808	-	-	-	-	-	-
수산 무척추 동물	629	1,024	-	-	629	1,024	-	-	-	-	-	-
성게류	138	402	69	254	138	402	69	254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0469>(검색일: 2020년 6월 10일)